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루가 제 7 주일

시칠리아의 성 루가 수도자 성 바울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제4조 • 조과 부활 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수도자 찬양송 ···· 85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 85 사도경 : 갈라디아 2,16~20 ···· 85 사도경 : 갈라디아 2,16~20 ··· 27 봉독서 295 복음경 : 루가 8,41~56 ··· 127

사랑과 관용

→ 로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라고 사도 바울로는 권고합니다. 자주 신실한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도 마찰을 일으키고 정상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억울함이나 중상모략 등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말로는 어떠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관용으로 우리는 상황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서로가 범한 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주시기를 주님께 의지합시다.

형제 여러분, 사도 바울로가 우리에게 권고한 내용을 잘 새겨들어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려고 노력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부터 서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롭게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을 추모하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믿음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지 못하고 의심이 많았던 토마 사도에게 도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믿고 따랐다. 그러나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직접 만나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임에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농부가열매를 얻기 위해 씨를 뿌렸다. 그런데 씨앗이바람에 날려 길가에 혹은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했다. 이 비유에서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긴 했으나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믿음의 뿌리가 약해 역경이오면 금방 넘어져 믿음을 유지 못하거나, 세상걱정과 재물에 너무 치우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 믿음을 갖고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말씀 하셨듯이 마음의 귀가 열려야 씨앗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 믿음의 싹을 피 울 수가 있다. 따라서 매 주일 성직자의 말씀을 귀를 통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간직하고 믿음 을 성장시켜야 한다.

씨앗을 뿌리면 잎이 나고 열매가 열리듯이 믿음을 성장시켜 실천에 옮기는 생활이 따라야 한다. 주님께서 풍성한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 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 자 그 나무가 즉시 말라 죽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믿음을 상징하고 열매는 선한 행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무화 과나무 잎사귀 같은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 해도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도 헛된 일이 된다.

사도 야고보는 서신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보 2,14~17)

삶의 목적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 룩하게 되라는 명령과 (어떤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주어지는) 특별한 우대책(優待策, 인센티 브)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 투 쟁과 거룩하게 되려는 희망 없이 살아간다면, 당신은 본질적인 요소는 없이 단지 이름만 지 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 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얻 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디모테오 전 1,15 참 조).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인 (聖人)이 되는 방법을 제공하심으로써 죄인들 을 구원하십니다.

- 성 필라렛 모스크바의 대주교

사람들이 전쟁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구출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 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되기 위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전쟁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을 위해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무엇인가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이 일시적인 삶 속으로들어가는데,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군인이 기뻐하면서 집을 돌아갈 것에 대해생각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삶의 마지막과 하늘의 고국으로 되돌아갈 것을 항상 기억하며 지냅니다.

- 성 니콜라이 벨리미로비치



거룩함을 얻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 이 수도사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 며 온갖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가 족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함에 이르 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함과 거 룩함에 대한 명령은 수도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오누프리 주교순교자(+1938, 폴란드)

우리 삶의 주요 목표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하느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린 하느님과의 친교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게 되며, 이로써 우리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 성 테오판 은둔자(러시아)

주간 예배 안내

- * 11월 8일(화)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모든 천군 천사들
- * 11월 9일(수)성 넥타리오스 대주교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안내

유튜브 (한국 정교회 채널)	
매 주일	성찬예배 중계
매주 월요일	성서공부 업로드
검색어	'orthodox korea' '한국 정교회'

줌(zoom) 단체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장년회, 성인 신자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주일학교

᠁ 애도하고 추모합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모든 분을 추모합니다. 서울 성당에서는 지난 주일, 추도식을 드리며 하느님께서 고인들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유가족에게 하느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고, 부상자들도 조속히 쾌유하기를 기원합니다.

Ⅲ 서울 성당 결혼성사

지난 주일(30일), 슬라브계 최 블라디미르-최 빅토리아 두 분의 결혼성사(로만 신부 집전)가 거행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Ⅲ 넥타리오스 성인 영화를 관람하고

지난 주일 오후, 많은 분이 함께 영화 '하느님의 사람'을 감명 깊게 관람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우리도 성인처럼 인내, 사랑, 용서의 3가지 덕목을 실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 양구 성당 철야 예배 안내

성 안드레아 사도의 축일을 맞아, 12월 2~3일(금~토)에 양구성당에서 철야 예배가 거행됩니다. 많은 참여있으시기를 바라며, 참가 신청은 서울 성당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살아난 과부의 아들 -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





얼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갔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떼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말라."하고 위로하시며 앞으로 다가서서 상여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 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하고 명령하셨다.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루가 7,11~15)

나인(사진)은 나자렛에서 남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있는 상주인구 약 2,000명 정도의 조그마한 아랍인 마을이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복음 내용으로 유명해졌다. 마을에 기념비가 세워지고 신학자들과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것은 오직 이 기적 때문이다. 12세기에 성당을 지었지만, 16세기에는 폐허만 남았다고 전해진다. 서방 교회에서 지은 단순하고 소박한 지금의 기념 성당은 1881년에 옛 유적 위에 지어졌다. 1948년에 발발한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 마을이 크게 파괴되기도 했다. 성지 안내서에는 모래 언덕 기슭에 누워 있는 마을로 묘사되기도 한다.